

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1.2.23일(화) 오후 3시~4시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권혁남 위원장, 박찬재 부위원장, 문해주, 정의식, 이현숙, 유환익, 정경모, 김세한, 천경숙, 추문갑 위원 등 10인

회사 참석 인원 : 시청자센터장, 보도국장, 심의실장

1. 다음 회의 일정

- 3월 일정 : 3월 23일(화) 오후 3시 연합뉴스빌딩 12층 대회의실

■ 주요 회의 내용

▲ 문해주 위원

- 전반적인 화면 구성이 타 방송사에 비해 좋아 보임. 특히 화면 오른쪽 위 '시간 안내'가 드러나 보여 좋고, '시간 안내' 아래 '코로나 감염 안내'도 코로나의 전체 상황을 알고 해외 상황과 지역별 상황도 계속 안내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음. (* 타 방송사는 지역별 감염 상황만 안내) 맨 아래 스크롤 뉴스자막은 분야별(예: 주요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등을 맨 좌측에 표시)로 나누어 송출하면 더 좋을 것 같음.

- 수어 동시통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모든 시간대에 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므로 메인뉴스 시간대에 수어통역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 수어통역 하는 시간을 쉽게 알 수 있게 안내해주는 것도 필요함. 또한 수어통역사의 옷 색깔도 자주색(2/18 NEWS20)보다는 검정색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람.

- 2/16 '부대 미 복귀' 부서관 체포 관련 [단독보도], 「강원도 부대로 출근해야 할 30대 부서관이 탈영 후 서울 강남의 숙박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긴급 체포됐다.」고 하는 내용을 [단독보도]하였음. 그러나 상당한 분량(1'26")으로 수차례 비중 있게 다룰 내용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군 복무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중대 관심 사안이고 근무기강을 바로 잡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동 내용은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군 사기문제도 고려해서 단신(앵커의 멘트)으로 가볍게 처리해도 될 듯 싶음.

- 2/18 외교부 "KAL858 수색단 파견 위해 미얀마 군부와 협의" 관련 보도

「정부가 대한항공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조사하기 위한 수색단 파견과 관련해 미얀마 군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단신(앵커만의 보도)으로 방송하였음. KAL858기 폭파사건은 34년이 지났지만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임. 또한 아직도 유족들은 사고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 뇌리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중대사건이므로 추후 심층보도를 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함. 또한 최근 구테타로 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군부와의 협의에 대해 시청자들은 궁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취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과도한 모자이크로 화면의 내용(형체)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음, 2/17, 2/18 코로나 관련 캠페인 관련 자막에 오자(팸페인 → 캠페인)

▲ 권혁남 위원장

보도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수어통역은 방통위에서 전체편성의 5%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낮12시 오후 8시 뉴스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통령기자회견, 재난재해방송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7~8프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옷차림은 잘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자막도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방식이 속보를 보내기엔 장점이 많아 분야 별 카테고리 내보내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스크롤 자막담당에게 일정한 시간대에 주요한 내용을 카테고리별로 묶두록 최대한 반영하게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독 보도는 보편타당한 기사의 가치를 잘 살피고 사회적 메시지도 생각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환익 위원

- 2월15일 김대호의 경제읽기 방송은 당일 핫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을 신속하게 분석해 보도 함으로써 뉴스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짧은 시간동안 지나치게 많은 주제들을 소화하려 하고 있어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는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됨,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손정의 회장이 쿠팡 상장으로 인해 얼마나 차익을 남기게 되었는지 등, 다분히 개인적이고 자극적인 사항들을 소개, 잘 모르는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해하지 않고 핵심사항도 아닌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을 구분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였음, 동 뉴스의 핵심은 국내 시장에서만 사업을 하고있는 쿠팡이 국내 주식시장을 선택하지 않고 뉴욕증시를 왜 택했느냐 하는 것과 이러한 선택의 제도적 배경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 즉,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요건이 까다로워, ①초반 적자를 실현하고 있는 신생벤처기업의 경우, 기업 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사실, ②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보호장치가 없어서 벤처창업자의 주식시장을 통한 지분희석 및 경영권박탈 우려가 상장저해 요인이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보도 했으면 더 이해도가 높아졌을 것,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보호장치는 신생벤처 기업들이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운용 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벤처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제도, 그러나 실리콘밸리 등 일부기업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굉장히 희귀한 제도로 설명하는 부분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

- 2월19일 출근길 인터뷰 아침뉴스 '뉴스09' 의 [출근길 인터뷰] 코너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현장을 찾아 그 분야 현장 종사자나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2월에는 19일까지 코로나 19 관련 3건, 4차산업혁명 관련 2건, ESG·학교폭력·부동산대책 등 최근 특히 더 화제가 되는 주제 3건, 서울대공원·국립중앙박물관·도박중독관리센터·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제도 소개 5건 등을 방송, 2월 주제로 4차산업혁명 인재확보 관건/설 연휴 이후 4차 대유행 경고등/4차산업혁명시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학교폭력 근절방안/ESG란 무엇인가/2·4 부동산 대책/코로나 백신 순차공급 계획/서울대공원 설 연휴 프로그램/국립중앙박물관 한중 소띠 교류전/온라인도박 근절방안/서울시50+재단 프로그램/코로나19 걸린 반려동물 대처법/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은 해당 코너는 주제에 대한 현황 및 소개, 앞으로의 전망, 발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등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짚어봄으로써 시청자에게 정보 전달, 하지만 2월 19일 방영된 '4차산업혁명 성공 필수 조건...인재육성과 확보' 편은 이러한 [출근길 인터뷰]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정보전달에 있어 다소 아쉬움, 4차산업혁명의 성공 필수조건으로 '인재육성과 확보'를 주목해 인터뷰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해당분야 전문가(배순민 KT 융합기술원 연구소장)가 AI인재 육성 및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노력으로 제시한 것이 시청자에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음, 전문가는 우리나라 AI 인재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①기업들의 연구환경에 대한 투자, ②기업들의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제시, 또한 AI 인재확보를 위해 기업이 해야 할 노력으로는 ①경직된 연구환경 지양, ②도전이 장려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마무리, 인터뷰이가 AI 인재 확보에 필요한 사항과 기업들이 해야 할 노력으로 언급한 '투자, 기업들의 장기적 안목, 자유로운 문화'는 시청자 입장에서 막연하게 느껴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음, 또한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인재 육성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는지는 언급이 없었음, 이는 현장 사람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경험담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출근길 인터뷰'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고 사료됨

▲ 권혁남 위원장

보도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김대호의 경제읽기는 방송에서 매일 낮시간대에 경제전문가를 고정적으로 방송하는것이 다른 보도채널에서 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전적자세로 경제를 보다 더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쿠팡발 차등의결권 등은 이번주 토요일날 뉴스프리즘에서 쿠팡관련 이슈는 3가지 꼭지로 기획하였으며 편성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가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경모 위원

-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문화예술 카테고리에 올라와있는 1월21일부터 2월22일까지 기사를 분석해 보았다. 전체 61개가 있었습니다. 전체 61건의 기사 중 영화 23건, 대중음악 19건, 미술/공예/문화재 8건의 기사가 생산되었으며 문학, 뮤지컬, 방송, 국악 등은 1~3건의 기사 노출에 그침. 영화 관련 기사 중 "영화배우 윤정희 방치 및 형제간 불화 등 " 관련 기사가 7건이며, 영화"미나리" 관련 기사는 7건으로 영화 기사 전체의 2/3를 위 두 내용의 기사로 차지함. 대중음악 관련 기사 중 "방탄소년단(BTS)" 관련 기사는 총 9건으로 대중음악 분야 기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함. 미술/공예/문화재 관련 기사는 총 8건이며, 그중 최지숙 기자의 리포팅("▶"문학과 미술의 교감...한중일 문화재의 만남"(2021.2.19.) / ▶"다시보는 한국 근현대 미술 거장들의 세계" (2021.1.30.)) 은 적절한 주제의 선정과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예술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수준 높은 기사임. 그 외 장르(문학, 뮤지컬, 국악, 연극 등)는 거의 취급이 안되고 기사도 단신으로 처리. 지난 1달간의 '문화·연예'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영화, 대중음악에 대한 편중이 매우 심하고, 미술/공예/문화재 등을 제외한 타 장르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극히 부족한 것으로 보임. 특히 영화는 '윤정희', '미나리'에 대한 기사가 절대량을 차지하여 해당분야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의 제공과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대중음악 분야도 '방탄소년단(BTS)' 관련 기사에 너무 치우침.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기사가 단신으로 처리되어 깊이 있는 취재와 수준 높은 분석기사는 거의 보이지 않음. 그나마 최지숙 기자가 리포팅한 몇몇 기사는 깊이 있는 취재와 올바른 정보의 제공으로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이라고 보

여짐. 연합뉴스TV의 '문화연예'분야 기사는 특정 분야(영화, 대중음악 등)에 너무 편중되며 그 중에서도 자극적인 주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심하며, '문화(예술)·연예' 분야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극히 부족하다 할 것임. 보도채널 특성상 속보 등 다른 분야 이슈 등으로 시청자의 관심과 집중을 끌 수밖에 없겠지만 24시간 뉴스채널이면 문화예술에 어느정도 할애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새로운 정보로 문화예술 분야 코너 등 편성 또는 보도를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 성기홍 보도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 보도국에서 문화부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스포츠문화부로 한명의 부장아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담당기자가 2명인데 1명은 출산육아휴가중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보도국의 목표는 스포츠와 문화분야를 독립시켜 독자적인 부장이나 팀장아래에 문화파트 콘텐츠를 풍부하게 생산하여 뉴스의 다양화 하는데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편성개편에 어렵겠지만 향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도 할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한 위원

1/28 '부하직원 기소 성추행' 오거돈 기소 ... "권력형 성범죄"관련 보도에서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앵커의 보도내용에는 '피해자 가운데 A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등을 호소해'라고 보도하기는 하였으나 자막에는 「피해자 2명... PTSD 호소해 강제추행치상 혐의 추가」로만 표기함, 그런데 서울역 등 공공장소에서 연합뉴스TV를 보는 시청자들은 통상 자막만 볼 수 있고 앵커의 발언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자막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는 표현 대신 PTSD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자막만 볼 수 있는 시청자들은 순간 PTSD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뉴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자막만 볼 수 있는 시청자를 위해서라도 위 'PTSD'라는 표현 대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는 표현을 자막에 기재함으로써 자막만 볼 수 있는 시청자에게도 뉴스의 의미가 쉽게 이해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음

▲ 성기홍 보도국장

너무 어려운 용어를 피하고 시청자입장에서 쉽고 직관적으로도 알수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해줘서 감사합니다.

▲ 천경숙 위원

2월15일 06시32분에 '민식이법' 이제 곧 1년...스쿨존도 큰 변화에 관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3월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한 지 1년이 된다 "는 내용을 다루면서 피해자를 막기 위한 노력들에 관해 소개하는 장면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영상과 적절한 자막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인터뷰는 뉴스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의식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찾아서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쿨존 구간 제한속도를 다음달 21일부터 시속 20km로 낮추는 등 어린이 보행 안전대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하여 곧

입학식과 개학식을 앞둔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준 것 같습니다. 신학기철 3월이나 9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스쿨존 주변의 위험한 상황들을 제보받아 어린이 교통사고관련 기사가 더 많이 나와서 좋은 영향으로 작용되어 조금 더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신학기철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환기 시켜주시니 적절한 때에 아이টে็ม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의식 위원

- 매일 COVID19 이야기가 모든 뉴스채널에서 특보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 누적 확진자 수, 지역별 확진자 수만 나오는데, 확진자 수의 추이도 중요하지만, 검사자 수가 적을 경우, 확진자 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로 인한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선, 확진자 수 옆에, 검사 수도 넣거나, 아니면 확진자/검사자 비율을 확진자(검사자)로 괄호 안에 넣는 방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수치중 하나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 얼마큼의 전파력이 있나를 통해, 코비드 감염의 전파 위험도(각 개인 일인당 전파 위험도)를 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메스콤에서 아주 가끔씩 이를 알려 주지만, 우측 위칸에 확진자 수와 같이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검사 수, 확진자 수, 누적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COVID19 질병의 추이를 알려 주었으면 어떨까도 생각해 봅니다.

- 1/28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집계를 시작한지 40년 만에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 85명으로,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약 3천 600백명이 줄었다는데요.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든 건 그렇지 않아도 적었던 혼인 건수가 코로나19 사태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매우 다양한데, 단지 코로나19 영향이 원인 중 일부이지만,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취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 자립이 안된 원인과, 집값 상승 등의 원인 등을 볼 수 있으나, 요즈음은 결혼 후에도 경제적 이유로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출산 후, 아이를 돌봐줄 탁아 시설(유아원)등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이들을 태워줄 운송 수단, 믿을만한 출퇴근 도우미 부족(비로 한다고 하여도, 비용 문제가 발생하거나와 그나마 구하기도 힘들), 이로 인해 둘째 아이 출산도 망설이거나, 늦추거나, 늦추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다양한 저출산 원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취재가 필요하고, 10년간 저출산 추이나 저출산율 등에 대한 그래프나 도표 등을 덧붙여 설명한다면 저출산의 심각성을 보다 잘 전달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출산률: 아마도 2020년 총 출산률이 0.84 정도 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아마 이 문제는 현재 코로나19 문제로 수면속에 가라앉아 있지만,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등을 감안하면, 매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층 취재나 시리즈로 취재해야 할 필요까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코로나 수치관련 정보는 리포터와 이상단 자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관련 리포터에는 기자가 상황전달 하면서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데 있습니다만 이상단 자막은 현재 국민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항을 압축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실무부서와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어느 언론이든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꼭 녹여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재 부위원장

- 2월 2일 '뉴스09' 뉴스프로그램에서 09:15분경 화면이 바뀌어 여성앵커가 멘트를 하고 있을 때 남성앵커가 약 2~3초간 정면이 아닌 정면에서 약간 우측을 보는 듯하면서 찡그리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가 얼른 바로 잡음. 프롬프트의 문제인지 앵커의 실수인지 알 수 없지만 방송시청에 있어 다소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 2월 4일 "전국 83만가구 주택 공급...서울은 분당 3배 규모" 보도는 먼저 그동안 주택공급에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늦게나마 반가운 보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보도에 있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보도의 대부분은 이번 정부들어 최대 규모로 전국 83만가구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책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뿐만 아니라 세입자, 영세상인 및 공장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공공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용적률 기부채납방식 개선, 서울 외곽 신규 택지 공급 등 정부의 장밋빛 정책발표에 대한 단순보도(내용설명)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시민들의 반응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입체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큼니다. 발표 이후 바로 시장의 평가는 정책에 대한 여러 문제점(재산권침해, 현실가능성, 품질저하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의 절반이 금번 정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관련 보도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들을 함께 다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2월 5일 "명절이 두려운 중증장애인들" 관련 보도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연휴기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집에 홀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명절에는 늘 혼자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절은 외로움을 넘어 생존에 위협을 주는 고통의 기간이며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인터뷰 내용은 명절의 의미와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좋은 보도였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무엇이었고 지원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아가 어떠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안이 함께 보도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 보도된 중증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명절에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이 많이 계시므로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2월 15일 12:09분 연합뉴스TV 수어방송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타 방송의 수어화면의 경우 수어통역사의 허리부터 화면에 나오는데 반하여 연합뉴스TV의 경우에는 무릎 위까지 화면에 나오며, 통역사의 의상 또한 밝아 더욱 활동적으로 보여짐에 따라 시원하고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다만, 수어통역이 있는 뉴스가 많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 뉴스에 수어통역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하신 점을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어방송은 다른채널에 비해 서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 권혁남 위원장

- 자막의 오타에 신경 쓰기 바랍니다. 자막 오타는 뉴스의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좀 더 세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1일 저녁 8시 뉴스에서 '미안마에서 옛새제 시위' 오타가 나왔습니다.

- 자막에 속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합니다. 2월 21일 'NEWS 13' 에서 오후 1시 31분에 방송된 뉴스에서 '술 취해 필름 끊겨 모텔 행'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속어 사용이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뉴스의 품질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 연합뉴스TV는 보도전문 채널로서 뉴스의 속보성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뉴스의 심층성에도 관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특히 보도의 생명은 정치, 사회 부정부패나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고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BC의 'PD수첩' '스트레이트' KBS의 '시사기획'과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파급효과가 큼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연합뉴스TV하면 딱 떠오르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저희 과제입니다. 탐사보도물은 방통위에서도 재허가 할때마다 권고, 권장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요일 오전마다 명품리포트 맥 편성물만에 뉴스프리즘, CEO풍향계, 여의도풍향계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함께 다루었지만, 올초부터는 탐사보도까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슈심층 보도정도까지 가보자 하면서 토요일 저녁시간에 뉴스프리즘이라는 별도 편성타이틀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주 정치·경제·사회 등 회의를 통하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템을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프리즘을 더 키워나가도록 방향을 잡아서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숙 위원

올해 초 유난히 아동학대 사건이 많았습니다. 연합뉴스 TV도 아동학대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대체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가 많은 가운데 [사건큐브] '8살 딸 살해한 엄마...출생신고 조차 안된 이유는?'처럼 아동이 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제도의 주요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룬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충격적인 사안들이 많고 국민들이 공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학대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거나 정부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가 많은 편인데 [사건큐브]는 아동보호시스템과 그 중의 중요 이슈 중의 하나인 출생통보제를 다루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어떤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안을 고민하는 보도였습니다. 반면 '입양가정이 문제?...' 아동학대는 어디에나 있다"는 보도는 아동보호제도 중의 하나인 입양제도의 공공공화라는 방

향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제목으로 기사를 다루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보도된 내용처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계부, 계모, 입양부모 이런 식으로 표현하여 편견을 일으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섬세하지 다루지 않으면 문제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서는 통계를 인용하여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양부모에 의한 사망사건 보다 많다는 점을 인용하여 입양부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은 양부모 보다는 친부모가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학대부모도 입양부모보다 친부모에 의한 사망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 사실을 인용하여 마치 입양부모보다는 친부모가 문제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입양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적절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부모에 의해 아동이 사망했다고 하며 모든 친부모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입양아동이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입양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였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입양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도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등 아동에 대한 범죄를 보도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세심하게 살펴 보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성기홍 보도국장

기사에 대한 역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 추문갑 위원

- 2월9일 "집·주식 세금만 급증...코로나 탓 세수 8조 감소"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불황으로 2020년 법인세는 2019년 대비 23.1%인 16조 7천억원이 감소했고, 집 값 급등으로 양도세는 7조 6천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식거래 폭증으로 증권거래세가 4조 3천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전년대비 4차 추경에 이어 올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등 재정적자 요인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 상당수는 재정지출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경기불황으로 발생했을 세수감소에 대한 궁금증이 큰 상황이었는데 이를 해소해 준 보도였습니다.올 한해에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지침이 계속되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편성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코로나 이후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재정건전성도 중요하므로 정부에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될 때마다 관련내용을 필요성과 문제점을 연관시켜 보도해 준다면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월11일 "온라인 쇼핑물 늑장 정산에 판매자들 곤혹...빠른 정산 입법 움직임"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 문제가 새로운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위메프 등 이커머스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판매대금 지급시기라는 보도내용처럼 최근 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안"의 핵심내용도 대금지급과 수수료 문제입니다. 향후에도 유통분야 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온라인거래에서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많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 2월12일 "넷플릭스에 막힌 토종OTT....독자 콘텐츠 구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로 집콕이 늘면서 미국계 넷플릭스 이용자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 토종 업체는 설 땅을 잃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 바람직한 보도입니다. 안방극장이 문화로 자리잡은 만큼 OTT 시장은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5일 넷플릭스로 전세계 190여개국에 동시에 선보인 한국 영화 승리호는 출시 이틀만(2월7일 기준)에 한국,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베트남 등 28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로 영화관을 통한 개봉이 어렵게 되자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입니다. 후속 보도를 이어간다면 우리나라 토종OTT 육성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선점효과가 큰 넷플릭스를 통한 영상콘텐츠 제작업체 육성방안도 함께 보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 권혁남 위원장

심의실장님, 처음 참석하셨는데 답변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2월 시청자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가희 심의실장

보도국내에서 근무하다 보니 공급자위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는데 회의에 참석하여 시청자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바랍니다.

▲ 권혁남 위원장

오늘 회의는 생산적으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2월 시청자정례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끝.